

3父子가 만들어내는 국악의 향연

■ 김승일 교수 13일 첫 국악 창작곡 발표회

작곡가 김승일(65) 조선대(음악교육학과) 명예교수에 지난 2월의 정년퇴임은 온전히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출발'이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 연구실을 마련한 김 교수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숙제'를 꺼내들었다. '손님(서양음악)이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국악)이 문밖을 서성이는 형국'이 안타까웠던 김 교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음악의 음 체계를 수단으로 삼아 국악곡을 만들어내겠다고 퇴임 후 작업에 속도를 냈다.



큰 아들 김상훈

오지만 너무 서양음악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조금 아쉽죠. 전 첼로나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진짜 '우리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국악기를 위한 곡들도 작업할 거구요. 지난해 독주회를 가진 아이들이 레퍼토리를 선정하느라 애를 먹더군요. 대금이나 아쟁이나 참 매력적인 악기인데 독주곡이 별로 없어 안타까웠



지난 7일 작곡가 김승일씨가 작곡한 대금 곡을 둘째 아들 형석씨가 연주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오는 13일 열리는 김 씨의 작곡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양 악기와 어우러진 국악곡 선배 대금·아쟁 주자 두 아들 작품 초연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오는 13일(오후 7시30분 광주 드림아트홀) 16년만에 갖는 다섯번째 작곡 발표회를 통해 조심스레 내놓는다. 지금까지 서양음악을 작곡해온 김 교수는 이번에 '우리음악을 생각하며'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장르의 국악곡을 선보인다. 클라리넷과 첼로 솔로곡도 있고,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협연한 곡도 있다.

이번 발표회가 더욱 의미있는 건 그의 작품을 초연할 연주자가 바로 김 교수의 두 아들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아쟁 수석을 맡고 있는 큰 아들 상훈(35)씨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대금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형석(32)씨는 발표회에서 아버지의 곡을 연주한다. 이번 연주회에서 상훈씨는 아쟁과 오보에를 위한 '귀뚜라미 가락에 의한 만남'을, 형석씨는 대금과 첼로 듀엣곡인 '중머리와 굿거리'를 들려 준다. "요즘 들어 많은 국악곡들이 나

죠.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국악은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라 작곡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럴 때 두 아들은 김교수에 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시도를 한 후 그 결과물을 아들들의 연주로 즉각 즉각 확인해 보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상훈씨 등에게도 아버지와 작업은 의미가 있다. "이번에 아버지에게 받은 곡이 너무 좋았어요. 서양 현대 음악을 국악에 접목시키고 싶었던 제 음악 방향과도 맞는 것 같아요. 서양 음악과 비슷하면서도 국악의 흐름이 들어 있고, 또 첼로 연주자와 서로 물 흐르듯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땅한 레퍼토리가 없어 주로 민속악에 치우치는 게 아쉬웠는데 전 든든한 후원자를 둔 셈이죠." (김형석) 현재 광주대에서 음악사를 강의 중인 김교수는 남은 음악 인생을



전남 일부서만 서식 '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오색 영통한 광체를 자랑하는 딱정벌레 일종인 비단벌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관우)은 전문가들의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도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비단벌레를 국가 지정문화재 일종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했

다고 8일 밝혔다. 비단벌레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곤충 가운데 그 빛깔이 가장 아름다운 곤충의 일종으로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멸종위기 대상 종으로서 보전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꽃의 화가' 조진호씨 서울·광주 순회전

23~29일 광주신세계갤러리

활짝 핀 꽃잎을 소재로 고향에 대한 추억을 표현하고 있는 조진호씨가 서울과 광주 순회전을 연다.

조씨는 10~18일까지 서울시 청담동 갤러리 PIC에서 개인전을 갖고, 23~29일까지는 장소를 광주로 옮겨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조씨는 '향기'(香)를 주제로 고향 들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국화와 목련 등을 담백한 수채화로 풀 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꽃잎이 활짝 꽃봉오리를 열어 금방이라도 향기가 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섬세하게 표현된 작품들이다. 또 배경으로 그려진 작은 네모 칸을 안정된 색감으로 칠해 꽃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꽃 이외에도 석류, 명태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고, 황토 빛깔을 배경으로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는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다.

조씨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관화 작업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지난 1980년대에는 광주 전남미술인 공동체를 창립하는 등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 동경, 서울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광주시전, 행주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과



'香'

운영위원을 지냈다. 또 한국미협, 한국수채화협회, 사다리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아씨 첫 개인전 '불꽃 놀이'

9~15일 롯데화랑

조선아씨가 9~15일까지 롯데화랑에서 '불꽃 놀이'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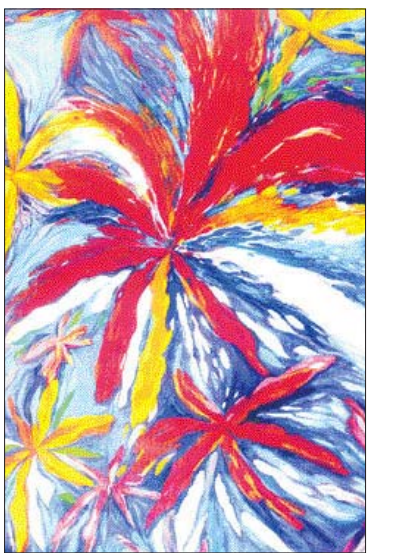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조씨는 밤 하늘을 수 놓는 불꽃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화폭에 담아 선보인다.

취불놀이를 하면 원을 그리면서 불꽃이 돌아가는데, 조씨는 이 같은 불꽃의 궤적을 화려한 색으로 표현했다. 불의 색이 수십 가지로 변하듯 작

품 속 불꽃들도 각각각색의 빛깔을 담고 있다. 또 공중에서 터지는 폭죽이 순식간에 밝은 빛을 내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불꽃 A' 연작도 눈길을 끈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출신인 조씨는 방향과 모색전, 도쿄아트 페스티벌 등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한국미협과 순수정신 회원이며, 조선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학과에 재학 중이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꽃 A-1'

청소년 락페스티벌·신인 가요제

11일 총장축제 특설무대



팝핀현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된다.

광주 동구청과 (사)광주·전남 연예예술인협회(지회장 유봉희)가 주최하는 '청소년 락페스티벌'이 오는 1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옛도청 앞 총장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팝핀현준을 비롯해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팀인 '코리아슈니어빅밴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비보이팀 '베를르쿠루' 등이

출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들의 축제의 장이자 신인가수의 등용문인 '제21회 전국 청소년 신인 가요제'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요제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호남, 영남권역의 본선진출자 11명이 무대에 오르며, '진짜 멋쟁이'의 진국이, '청춘의 빛'의 진주아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문의 062-225-108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육대회
The 8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08. 10. 10(금) ~ 10. 16(목) 16:00 여수시 진남경기장

개회식 : 2008. 10. 10(금) 16:00 여수시 진남경기장

폐회식 : 2008. 10. 16(목) 18:00 여수시 진남경기장

여수시 개최총국
개회식 / 폐회식 / 8개 종목

주최 : 대한체육회
주관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라남도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